

## 호스피스 봉사 체험 수기

오 창 호 · 요셉

성 가롤로병원 자원봉사자



‘호스피스’라는 단어에 마음이 끌리어 호기심에 ‘무엇일까?’ 하고 교육을 받고나서 활동을 ‘할까? 말까?’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함께 활동하자고 하셔서 용기를 갖고 자매님들 사이에 끼어 활동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는 환자의 상태, 심리적인 것 등 조금은 알았지만 처음 하는 활동이기에 병실을 방문할 때, 문을 노크할 때,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였고, 어떤 환자는 만나기를 거부하고, 얼굴을 돌리고, 어떤 병실에서는 가족이 들어오지 말라고 눈짓과 손을 내저을 때 봉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초년시절 그분들과 가족들과의 처음 만남이 어려웠던 시절이 생갑니다.

처음 짝이 되어 봉사 하였던 형제님과 1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였는데 그 분 개인사정으로 봉사를 중단하게 되어 저는 오래 전부터 부부간에 잘 알고 지내는 새로운 짝 데레사 자매님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 가롤로 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모두 자매님들로 짝이 되어있지만 저는 금요일 오전에 봉사 활동하는 혼성팀이기에 동성끼리 짝보다 혼성 짝이 환자와 가족에게 접근하여 대화하고 봉사하는데 더 친밀해지고 여러 분야에서 좋은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과 셋째 주 금요일은 미용봉사자가 병동에 와서 환우들의 머리손질을 해주기에 우리는 다른 요일에 봉사하는 회원들보다는 좀 더 환자와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용봉사가 끝나면 우리는 환자들께 먼저 칭찬을 하여 줍니다. 여자 환우 분들께는 피부도 곱고 컷트를 하고 나니 아주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면 수줍어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남자 환우 분들께는 미남이라고 하며 다시 장가가도 되겠다고 하면 웃으며 가족과 환자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 감겨주기, 면도 하여주기, 환자 상태에 따라 목욕을 시켜 드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의 대화를 나눌 때 더욱 친근감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이라도 환우와 가족과 관계를 갖고 나면 다음부터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된듯함을 느낍니다.

사실 봉사한다며 1주일에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환우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등을 쓸어 드리고 손, 발을 만져줄 때 대부분의 환우들은 너무 너무 감사하다며 자신도 병이 나으면 꼭 보람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이들과 이별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 보았지만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L이라는 환우는 30대에 국가공무원이 되어 자기포부를 성취하고자 열

심히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40대 초반의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생각하는 모든 것은 긍정적이었고 쾌활한 듯 하였으나 어느 날부터 사람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간병인의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여 위로의 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조심스레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여도 되겠냐고 했더니 좋아라고 하며 자기는 목사님 친구가 있어서 교회 다녔는데 최근에는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육체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하며, 허무하다고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자신이 임종이 가까워짐을 아는 듯 나의 손목을 잡고 울부짖으며 떨고 있을 때 같이 울먹이며 주님께서 L박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 이라고 하였더니 ‘그럴까요?’ 라고 반문하기에 확실히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 주신다고 위로의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그를 다시 방문했을 때 형이라고 부르면서 형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휠체어를 태워 주기를 원하여 나는 그를 태우고 병동 밖으로 나와서 대화하는 중에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여 어린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고 자기 직종에서 다른 동료보다 먼저 꽃을 피웠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며 긴 한숨을 쉬고는 먼 하늘을 쳐다보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형제가 많은데 그 중 큰 형님과과의 좋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알려 주기에 먼저 큰 형님과 화해를 하도록 하였으나 절대로 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큰 형이 병실에 찾아오면 자신은 병이 더 악화 될 것이라며 싫어했습니다.

저는 그 환우가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큰 형과 화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수차례 방문하여 화해하도록 대화를 하였습니다. 1주일 후 방문했을 때 그는 기력이 다하여 눈을 감고 힘없이 누워있었는데 간병인이 큰 소리로 봉사자

형님 오셨다고 하니까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손을 내밀며 얇은 미소를 띠우고 손짓을 하기에 손을 꼭 잡아주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형이 시키는 대로 큰 형과 손을 꼭 붙잡았다는 이야기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봉사하는 보람을 느꼈고 한 영혼이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 봉사하기 전에 기도실에서 그 환우와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기 암 환우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지마는 실제로는 인생살이에 대하여 그들로 부터 삶의 의미를 배우고 얻어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가져봅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통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는 조심스레 다가가서 다정스레 말을 건네며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부은 손, 발등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만지며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진정한 가정에서 내 배우자에게 가족에게도 그렇게 다정스레 대화를 하고 행동 했는가? 배우자가 아프다고 하였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하였던가? 아이들에게는 아빠로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의 대화를 하였던가? 그리고 내 이웃들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 했으면서도 어떤 때에는 다시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면서 호스피스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자 합니다.